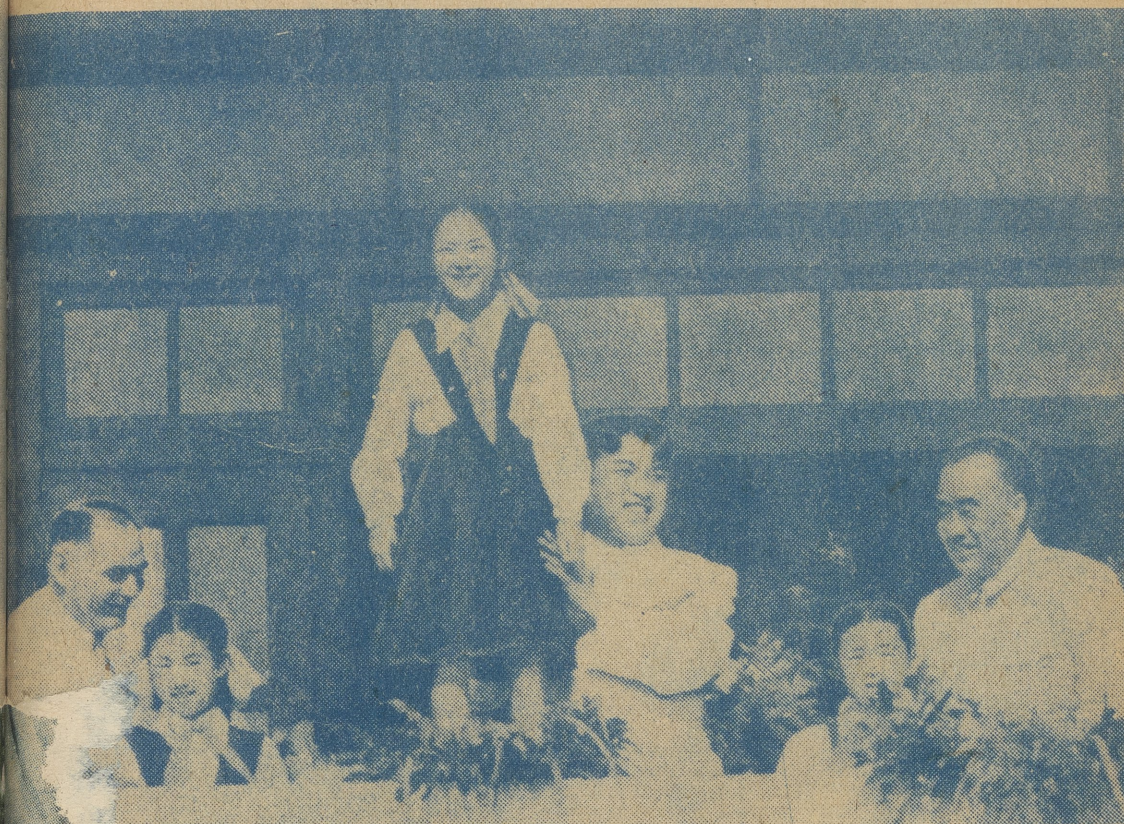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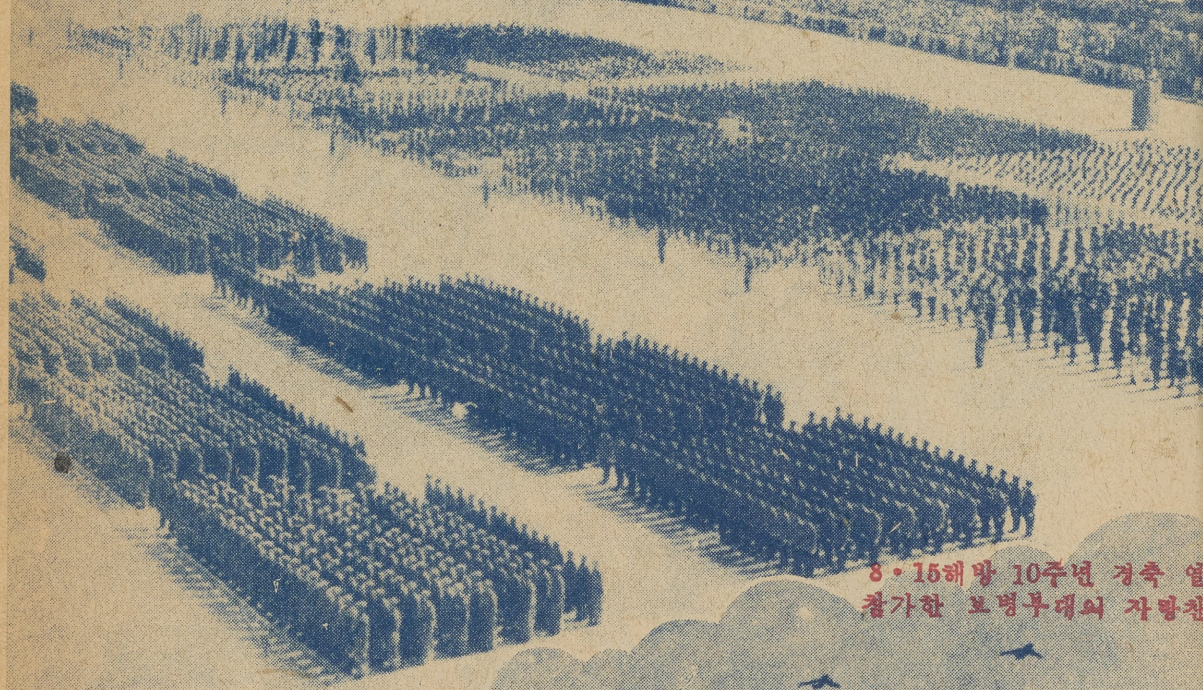
소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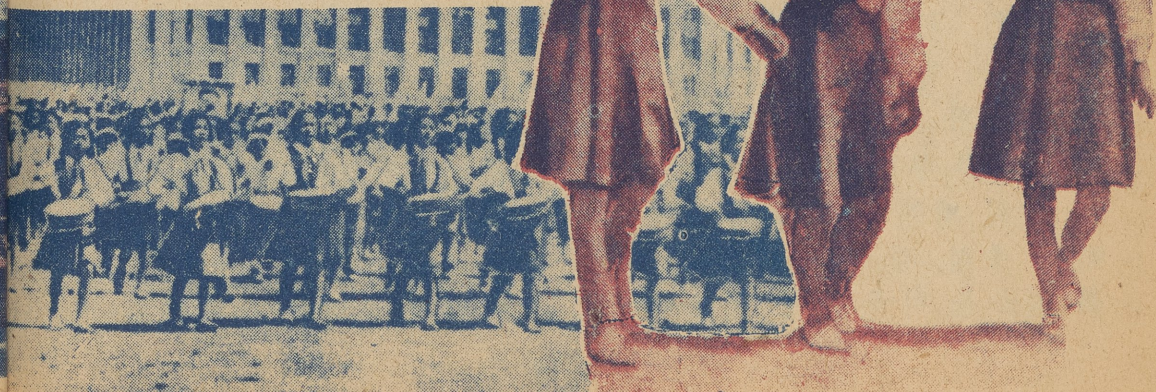
1955.9

보천보에 세워진 김 일성 원수 동상

8•15 해방 10주년 기념 전국 체육 축전 개회식에서 평양시 소년단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에게와 그리고 쏘련 정부 대표단 단장 아•브•아리쓰또브, 중화 인민 공화국 대표단 단장 주덕 부주석에게 꽃다발을 올리였다.

8.15 해방 10주년 기념일에

8·15해방 10주년 경축 열
참가한 보병부대의 자랑찬

앞장서 나아가는 보병 부대의 첫 대렬.

땅크부대와 항공 부대의 자랑스러운

[illegible] 군중의 한 대렬.

을 울리며 씩씩히 행진하는 소년단원들

소년단원들은 평화의 비둘기를 하늘높이 날렸다.

영광스러운 자취를 찾아서

모란봉 해방탑으로 가는 대동강 기슭을 걸어 대동문 앞을 지나면 련광정 마른쪽에 아름다운 4층집이 다가서듯 우뚝 솟아 있습니다.

날마다 이 집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그치지 않습니다. 소년단원들의 대렬도 자주 이 집에 찾아 옵니다. 새로 개관된 이 국립 중앙 해방 투쟁 박물관 김 일성 원수 항일 빨찌산 투쟁실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의 생애와 활동을 더욱 깊이 연구하려고 찾아 오는 것입니다.

이 건물 앞에 김 일성 원수의 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서 옷깃을 여며 김 일성 원수의 일 빨찌산 투쟁을 개하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김 일성 원수께서 탄생하신 인 1912년부터, 일 제국주의자들을 반하여 용감히 싸우시 가 8•15 해방과 함 승리하고 돌아 신 해인 1945년까 김 일성 원수의 빛 는 투쟁을 보여 주는 자료들 소개되여 있습니다.

먼저 김 일성 원수의 소년 절부터 보게 됩니다.

원수께서 탄생하여 유년 시 를 보내신 아름다운 만경대, 제를 반대하는 민족 해방 운 을 하시던 아버지와 숙부 그 고 어머니와 조부모, 공부하 던 학교들을 사진, 유화, 모 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김 일성 원수께 어떤 가정에서 탄생하시였으며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애국자로 자라나기 시작하시였는가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눈시울이 뜨거워지게 하는 것은 김 일성 원수께서 14세 때 중국 동북으로 들어 가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 내가 자라나고 선조의 분묘가 있는 나의 조국! 나는 반드시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싸우리라.
>
>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다시 이 강을 건너 돌아오지 않으리라!

김 일성 원수는 벌써 14세 때 사랑하는 조국을 위하여 한몸 바쳐 싸울 것을 조국 앞에 맹세하셨던 것입니다.

김 일성 원수의 이 맹세가 새겨져 있는 글판 옆에는 보는 사람들의 걸음을 오래 멈추게 하는 유화 한장이 있습니다. 그 유화에는 중국 동북으로 건너 가시여 독립 운동을 계속하고 계시던 아버지를 따라 압록강을 건느실 때 원수께서 압록강 나루터에 서서 조국의 강산, 아름다운 고향 하늘을 바라보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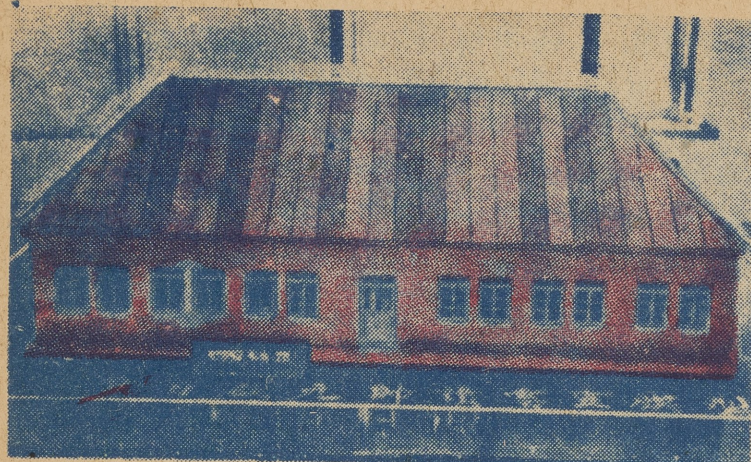
원수님이 무송 제1우급 소학교 를 다니실 때 쓰시던 책상과 걸상

김 일성 원수께서 이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 꾸준히 배웠으며 굴함 없이 싸워 온 자취를 실물 자료, 유화, 도표, 사진, 모형들에서 자세히 찾아 봅니다.

무송 제1 우급 소학교에서 공부하실 때 쓰시던 책상, 걸상이 가즈런히 놓여 있고 교과서 (고급 산수 파본)가 놓여 있는 곳에서 학생 시절의 원수님을 그려봅니다. 원수님께서 모든 물건을 단정히 거두시며 아껴 쓰셨다는 것을 남김 없이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원수님께서 많은 소년들을 데리고 군대 놀음, 연극 등 여러가지 유희를 하시던 삼바우 (무송) 사진과 유화 "아버지의 유언을 받으시는 김 일성 원수"를 보고 나서 일찌기 인민의 적들과 싸우기 시작한 "김 일성 원수의 혁명적 활동의 개시"에 대하여 보여 주는 방으로 들어 갑니다.

16세 때의 김일성 원수의 사진, 원수님께서 쓰시던 길림 육문 중학교 시절의 모표, 양복 단추 등 실물들을 뜻깊게 보면서 김 일성 원수께서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일제 및 기타 반동들과의 투쟁의 길로 공청원들을 지도하신 이야기를 해설원에게서

김 일성 원수께서 독서하시던 도서실 모형

듣습니다.

그리고 중국 길림성 인민 정부에서 선물로 보내온 모형— 김 일성 원수께서 공부하시던 길림 사립 육문 중학교 모형, 책을 즐겨 읽으시던 도서실 모형, 《공청 사건》으로 1927년부터 1928년까지에 걸쳐 감옥 살이를 하신 길림 감옥 모형들을 봅니다.

이 모든 관람을 끝내면 김 일성 원수의 영광스러운 청소년 시절을 더듬어가면서 원수님의 빨찌산 투쟁이 소개되여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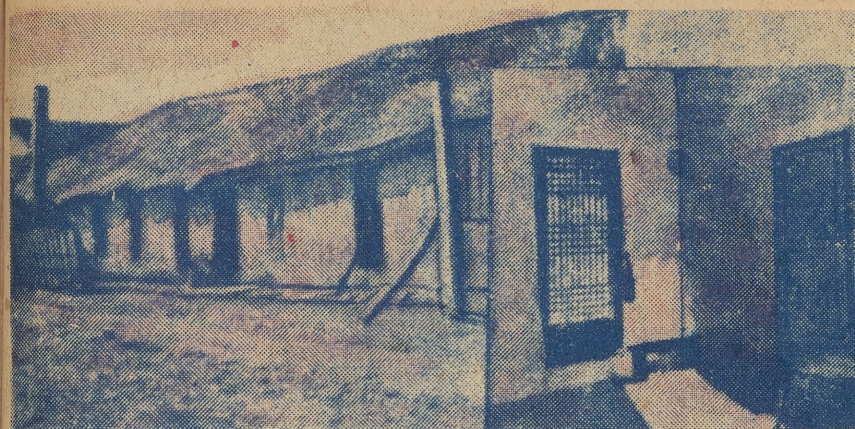
김 일성 원수께서는 1930년대에 벌써 인민 유격대를 조직하여 직접 총칼을 들고 일제와 싸우기 시작하였으며 유격대를 더욱 튼튼히 묶어 세우면서 곳곳에 유격근거지—해방 지구를 만들었습니다.

인민 유격대가 사용하던 권총, 장총, 칼, 총창, 도끼, 자동기관 단총, 양포, 연길 폭탄 등 무기들과 생활 도구, 오락 기구 그리고 적들에게서 빼앗은 무기들이 그때의 투쟁 모습을 그대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김 일성 원수의 항일 빨찌산 부대들이 튼튼히 자리잡고 있던 유격근거지—해방지구에서는 토지를 밭가는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정권은 인민들에게 있었습니다. 학교, 병원, 통신 기관들과 피복 공장, 무기 수리 공장, 폭발탄, 탄환 제조소도 있었습니다.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 소년들은 원쑤놈들의 총칼을 무서워하지 않고 김 일성 원수의 항일 빨찌산 부대를 따르며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일성 원수의 항일 빨찌산이 있는 곳에는 소년 선봉대, 아동단들이 있었습니다. 소왕청 유격 근거지를 비롯한 수많은 유격 근거지 탁도들에서 김 일성 원수께서 조직하고 지도하신 소년 선봉대, 아동단의 표식을 볼 수 있습니다.

김 일성 원수께서 동만 반일 인민 유격대와 남만 반일 인민 유격대를 합하여 조선 인민 혁명군을 조직하고 또 조국 광복회를 조직하신 뒤부터는 더욱 힘차게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만주 괴뢰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무송현성 전투를 비롯한 크

김 일성 원수께서 첫 무장 대오를 조직하기 위하여 쓰시던 비밀 집합소 (1931년. 안도시 서문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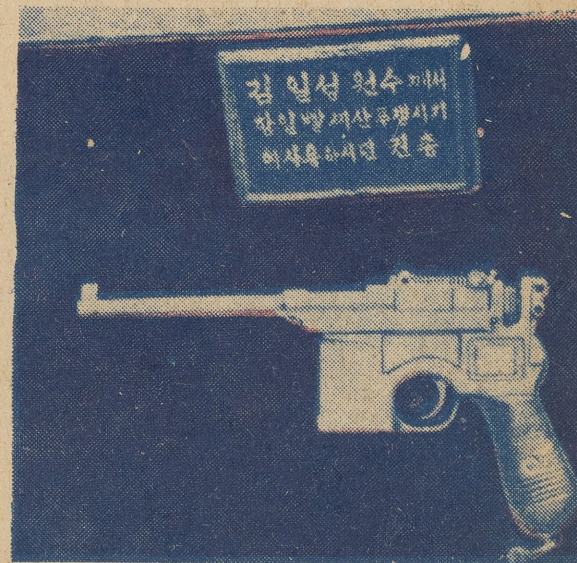
고 작은 수많은 전투를 보여 주는 유물들과, 략도, 유화, 신문기사, 선전공작에 쓰던 등사기, 비밀 집합소의 사진, 빛나는 전과표들은 하나하나가 보는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김 일성 원수께서 령도하신 조선 인민 혁명군은 보천보 전투를 비롯하여 어려운 가운데서 굽힘 없이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다가 쏘련 군대와 함께 일제를 반대하는 전쟁에 참가하여 용감히 싸워이기고 개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람자들은 승리하고 돌아 오신 김 일성 원수께서 인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는 유화를 보게 됩니다.

승리하고 돌아 오신 원수님께서 할머니와 20년 만에 상봉하시는 사진을 보는 사람들의 눈시울은 스스로 뜨거워집니다. 일제와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다시 돌아 오지 않겠다던 사랑하는 조국 땅에 김 일성 원수는 끝내 이기고 돌아 오신 것입니다.

여기를 찾는 모든 사람들은 15년을 넘는 오랜 세월을 하루와 같이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일제와 싸우신 김 일성 원수의 빛나는 투쟁 업적을 다시금 가슴깊이 새기면서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를 모신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품 속에서 행복하게 살며 배우는 기쁨을 자랑합니다.

(리 기 봉)

—젊은 마뜨로쏘브 백 운성 전사의 이야기—

박 경 출

아름다운 해금강이 눈 아래로 바라다 보이는 동해안의 351 고지는 우리 인민군 용사들의 가지가지의 용감한 이야기로 이름난 영웅의 고지입니다.

1953년 6월 2일, 우리 인민군 용사들은 적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빼앗기지 않으리라고 하던 이 351 고지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적들은 더러 고지의 턴넬속에 숨어 입구에 독사 같은 중기 화점을 도사리고 우리 인민군 용사들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벌써 이 중기 화점 때문에 소대장은 부상을 입고 김 산일 부분대장은 희생되였습니다.

인민군 용사들은 저마다 그놈의 적 중기 화점을 어떻게 하면 까부실 수 있을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김 우진 중대장이 대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중대장은 사랑하는 전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둘러 보더니 이윽고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동지들 저 중기 화점을 까부시지 않고서는 우리는 귀중한 피를 많이 흘리게 됩니다. 누가 가겠습니까?》.

이 말이 끝나자,

《제가 가겠습니다. 중대장 동지!》하고 웨치며 썩 나선 것은 민청 위원장 조 신형 부소대장이였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하고 김 동재 전사도 나섰습니다.

뒤이어 쨍쨍한 목소리가 또 울렸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18세의 민청원 백 운성 전사였습니다. 중대장은 그의 온 몸을 한참 동안 뜯어 보았습니다. 어딘지 그 애티 있는 귀여운 모습은 아직도 집에서 어리광을

부리고 있을 어린 아우들을 생각케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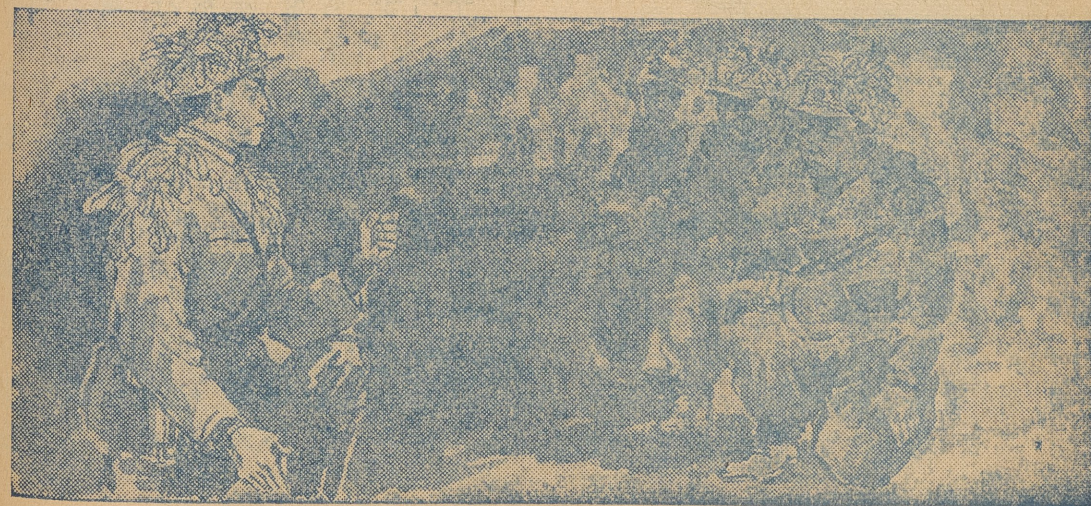
《운성 동무, 동무는 다음 번으로 하시요!》.

한참 동안 운성이의 얼굴을 들여다 보고만 있던 중대장은 이윽고 사랑에 가득찬 목소리로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백 운성 전사는 항상 상관의 명령을 잘 지켜 왔지만 이 명령만은《네》하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도 사랑해 주던 김 산일 부분대장이 어제 바로 그놈의 중기한테 희생된 것을 생각하니 분한 생각으로 막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또 그뿐이 아니였습니다. 백 운성 전사는 지난 해 8월달에 고향에서 겪은 폭격에 대하여 생각했습니다. 미국놈의 비행기들은 그가 다니던 학교며 정든 고향집을 모주리 불살라 버렸던 것입니다.

《중대장 동지, 저를 꼭 보내 주십시요. 원쑤를 꼭 갚겠습니다!》.

그의 웨침은 애티 떤 어린 그에게 어울리지 않게 아주 야무지였습니다.

중대장의 얼굴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입대한지 겨우 석달 밖에 안되고 아직 한번도 전투를 겪어 보지 못한 저 꼬마를 힘에 겨운 전투에 어떻게 내여 보낼가?

그러나 중대장은 백 운성 전사의 불보다도 뜨거운 적에 대한 증오와 로동당원들처럼 용감히 조국을 위하여 싸우려는 그의 의지를 도저히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소! 그러면 같이 가시요—》.

중대장은 드디여 허락하였습니다. 순간 백 운성 전사의 둥그런 두 눈은 기쁨으로 번쩍이였습니다.

× ×

적 중기 화점은 불과 몇십m 도 가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떠날 때 부

터 적 중기가 또 울부짖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통호를 따라 조심히 나아가던 세 사람이 턴넬 입구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적들은 이들을 보았는지 더욱 요란히 중기를 쏘아왔습니다. 적 중기 탄알은 그만 김 동재 전사를 쓰러뜨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본 부소대장의 두 눈에서는 분노의 불'길이 무섭게 타 올랐습니다.

그는 옆에 찼던 반 땅크 수류탄을 뽑아 들고 적 중기 화점으로 와락 내 달리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였습니다.

《부소대장 동지, 만약 부소대장 동지마저 희생된다면 누가 소대를 지휘합니까?》.

이렇게 웨치며 백 운성 전사는 날쌔게 부소대장을 뒤로 밀치고 앞으로 내달아 갔습니다.

미처 잡을 사이도 없었습니다. 그는 한 몸이 희생되더라도 부상 당한 소대장을 대리하여 소대를 지휘하고 있는 부소대장을 잃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곧 부대의 승리를 위한 것이고 조국의 승리를 위한 인민군 전사의 영예로운 임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쾅!》

무서운 폭발 소리가 굴 어구에서 일어났습니다.

백 운성 전사가 던진 반 땅크 수류탄은 적 중기 화점에 빗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백 운성 전사는 넙적다리를 적탄에 꿰여 뚫리고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제길!》.

그는 땅 바닥에 엎드린채 증오스러운 적 중기 아가리를 노려 보며 부르짖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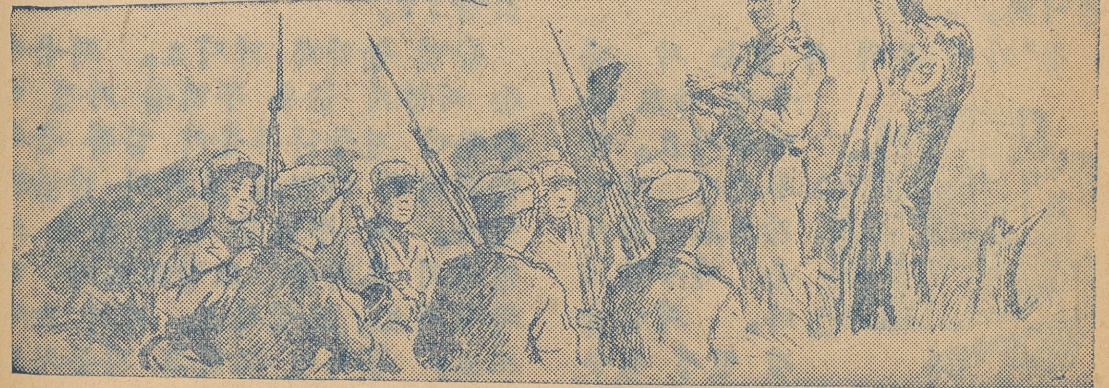
—나의 고향을 불태우고 나의 전우들의 목숨을 빼앗은 저놈들을 어떻게 그냥 둘 수가 있는가!

그는 손끝에 힘을 주며 가슴을 땅바닥에서 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젠 한개의 수류탄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며칠 전, 이 고지에서 목숨보다도 귀중한 조국을 위하여 적 화구를 자기의 몸으로 막아 승리의 길을 열어 놓은 김 인택, 김 용택 전우들의 슬기로운 모습을 눈 앞에 그려보았습니다.

—옳다 351 고지를 완전히 우리의 손에 넣기 위해서는 땅 속에 숨은 저놈들을 모주리 잡아야 한다. 나는 김 일성 원수의 전사, 나는 로동당원으로 되려는 민청원, 나는 내 목숨보다도 더 귀중한 나의 조국을 위하여 싸우련다!

그는 이를 악물고 모진 아픔을 이겨 내면서 다리를 끌며 증오스러운 적 화구까지 기여 나갔습니다.

순간 그의 가슴은 원쑤의 불'길을 막아 전우들의 승리의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주 짧은 동안에 진행되였습니다.

《운성아! 반드시 네 원쑤를 갚아 주마!》. 친 아우처럼 사랑하던 어린 전우의 용감한 모습을 바라본 조 신형 부소대장이 뒤미쳐 달려 들어 오며 화구를 빼앗긴 원쑤놈들의 뒤통수에 무서운 복수의 불벼락을 들씌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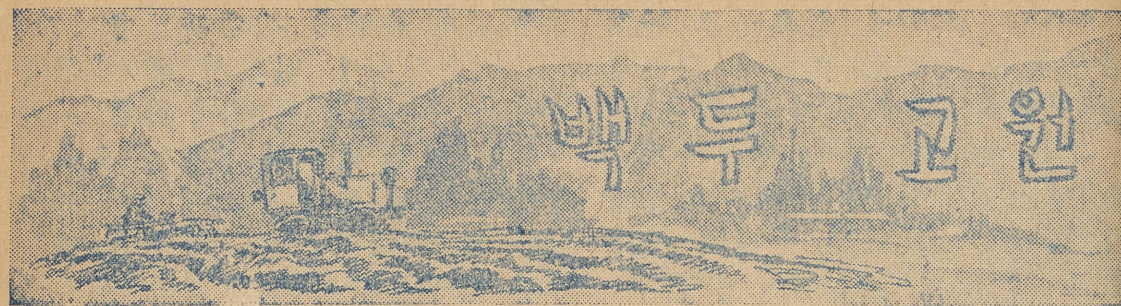
싸움이 끝나자, 조 신형 부소대장은 전우들과 마주 앉아 백 운성 전사의 가슴에서 꺼낸 피묻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의 수첩에는 이러한 글이 씌여 있었습니다.

…배움도 귀중하지만
더욱 귀중한 것이 있다.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조국의 자유와 행복! 조국
위해 나는 몸을 바치련다. 그
를 위해 나는 지금 떠나련다…

정든 학교를 떠나 영광스러운
인민 군대에 입대하면서.
1953년 3월.

그는 이 자기의 결심대로 조국의 참된 아들답게 싸워 이겼습니다.

박 근

소년단원 동무들! 이제 나와 함께 백두 고원의 농장을 찾아 갑시다.

자 모두 출발준비를 끝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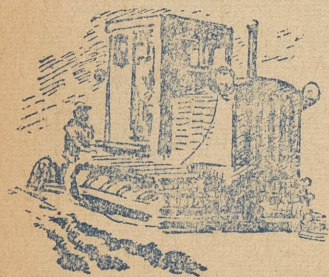
…우리는 벌써 무산 역에서 200리나 되는 산중으로 들어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동무들이 보고 싶어하던 백두산 밑 넓디넓은 농장 벌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밤에 멧돼지가 나왔대》.

《아마 감자 도적질 왔던 모양이지》.

때로, 가는 길'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더라도 놀랠 것은 없어요. 곰, 승냥이, 때로는 범도 나온다는 산중이니까 그런 이야기쯤은 아무 것도 아니지요.

자 처음 가는 곳은 신덕 분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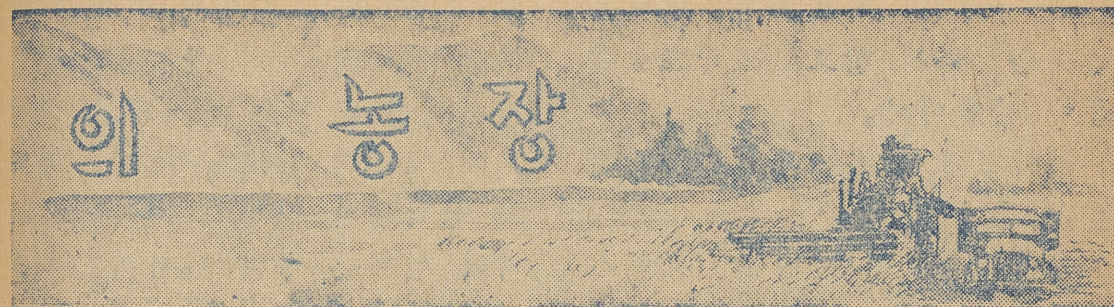
길'가에 흔히 서 있는 저 나무가 바로 봇나무지요. 백두산에 제일 많고도 귀여운 나무랍니다. 지난날 김 일성 원수의 항일 빨찌산 대원들도 이 나무 그늘 밑에서 휴식하였답니다.

동무들, 어서 고개에 오르십시요.

저기 바로 신덕 분장이 눈 앞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상상도 못했지요. 해발 1,200m나 되는 이 깊은 산골짜기에 이렇게 넓은 벌판이 있으리라고!

《열두 삼천리'벌이 여기도 있네》.

참말 그렇지요. 그러나 이것은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곳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이 밤을 새워가며 일한 로력의 열매랍니다.

《저 집채 같은 나무 뿌리는 어떻게 뽑았나요. 저렇게 많은 것을!》.

참말 놀라게 되지요. 처음에는 저렇게 늙은 뿌리를 가진 아름들이 진등나무들이 함뿍 들어박히여서 하늘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저 뿌리를 뽑는 일은 쏘련에서 보내준 뜨락또르가 해치웠지요. 보십시요. 저기 뜨락또르, 꼼바인 그리고 자동차도 보이지요.

이곳에서는 농사를 소나 사람의 힘으로 짓지 않는답니다.

밭도 기계로 갈아 치우며 씨뿌리기, 김매기, 추수도 모두 기계의 힘으로 한답니다.

자, 그러면 또 더 가 볼가요. 잠시 더 가면 백두산이 보이지요. 그곳에는 또 거의 900정보나 되는 신흥 분장이 있답니다.

《백두산이 보입니다. 백두산! 백두산!》.

자 뒤떨어진 동무들, 어서 빨리 갑시다.

먼저 간 동무들이 백두산을 선참 보았군. 자! 보십시요. 꼭 푸른 바다에 둥실 떠 있는 얼음산 같지요. 이곳 아저씨들은 저 백두산을 볼 때마다 힘이 솟아 매일 맡은 일을 넘쳐 다하군 한답니다.

보십시요. 저기 넓은 신덕 분장에서 지금 아버지, 어머니들이 땀흘리며 일하고 계시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좀 쉬였다 갑시다.

여기 두지바우는 김 일성 원수의 빨찌산 대원들이 우등'불을 피여 놓구 왜적을 무찌른 피곤을 잠시 풀고 간 곳이랍니다.

모두들, 두지바우 옆에 어서 모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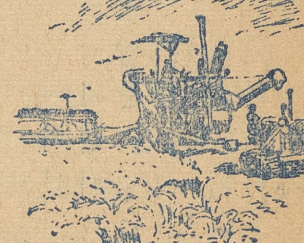
그러면 이제부터 나머지 이야기를 시작하지요. 국영 제5호 종합 농장은 우리가 구경한 곳뿐만 아니라 아직도 많은 분장들이 있습니다. 900정보가 넘는 사동 분장과 농사동 분장, 500여정보의 호박밭, 참말로 큰 농장이지요.

이 농장에서는 주로 보리, 귀밀, 감자, 호박, 사탕무, 참오이조 (조의 한종류), 배추 등을 많이 심습니다. 한 사람이 여기서 나는 보리와 감자만 가지고도 23,000년을 살수가 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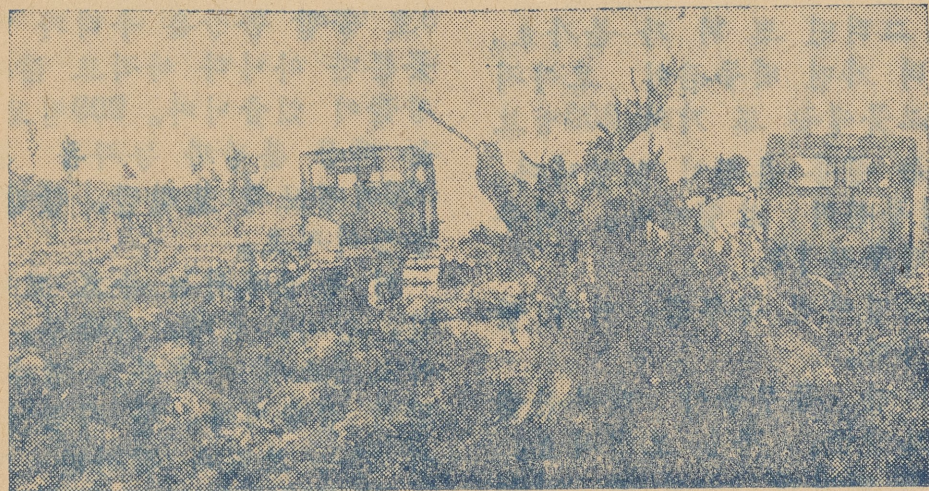
어떻습니까? 굉장하지요.

그리고 농장에는 돼지도 수천마리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농장의 이름난 형님, 누나들의 이야기를 하지요.

뜨락또르 운전수 정 시창 형님은 이 넓고 넓은 벌판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

한 첫날부터 아직까지 하루도 결근을 하지 않고 뜨락또르를 몰아 왔답니다.

《어떻게 하면 매일 더 많은 밭을 갈가?》.

형님은 날마다 일해 오면서 이것을 항상 생각했답니다. 드디여 형님의 로력은 열매를 맺었지요. 형님은 발가는 기계에 뿌루그 (보섭의 일종)를 하나 더 달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매일

두배반이나 더 갈아내고 있지요.

다음에는 박 은춘 언니의 이야기를 들어 보기로 합시다.

백두산 곡대기에 눈보라가 막 휘몰아 쳐오는 지난해 겨울에 생긴 일이랍니다.

언니가 말아 기르는 돼지 한 마리가 밤중에 갑자기 병이 나서 숨도 잘 쉬지 못하면서 씩씩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언니는 이때 20리나 되는 산속 오솔'길을 혼자서 수의 아저씨를 데리러 갔다 왔지요. 수의 아저씨가 돼지를 치료하고 나서 그리 대단치 않으니 걱정 말라고 언니에게 타일렀습니다. 그러나 언니는 수의 아저씨가 돌아간 다음에도 하루 밤을 그냥 뜬 눈으로 밝히며 병든 돼지를 돌봐 주었답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이 농장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이야기는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백두산 밀, 저 넓은 벌판에서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이 얼마나 부러워요.

저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은 날마다 이 백두산 밀 농장에서 조국을 위하여 그리고 모든 우리 인민의 행복한 살림을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부지런히 일하고 계신답니다.

(조선 소년단 중앙 야영소에서)

개성 사직 인민 학교 5학년

박 찬 표

☆아름다운 동해 바다

7월 24일 아침, 나는 바다를 처음 보았다. 우리 야영생들을 태운 기차는 쏜살같이 푸른 소나무 우거진 동해 바다'가를 달려갔다.

갈매기 날고 고기'배 떠다니는 아름다운 동해, 나는 막 날 것 같이 기뻤다.

어제'밤 나는 기차'간에서 동무들과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얘들아, 바다는 어떻게 생겼을가?》.

《바다는 큰 호수 같고 흐르는 넓은 강 같다》.

자강도 성간 인민 학교에서 온 웅선 동무가 이렇게 말하였다.

《그리고 바다는 둥굴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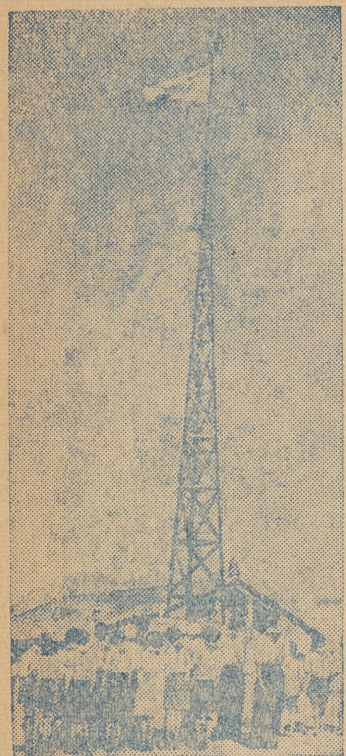
나는 그에게 이렇게 물어 보았다.

그러나 이 아침 눈으로 바다를 직접 보았을 때 아무리 큰 호수도 아무리 넓은 강도 바다에는 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의 눈시울은 뜨거워졌다. 공화국의 품속에서 살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즐거운 야영을 떠날 수 없었을 것이다.

공화국의 품속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바다 구경은 커녕 기차도 타볼 수 없었던 것이다.

(기차야, 어서 달려라!)

기쁨에 찬 내 마음은 달리는 기차 보다도 더 빨리 어서 보고

싶은 조선 소년단 중앙 야영소로 달리여 갔다。

★야영소를 처음 보았을 때

7월 24일 오후 나는 그렇게도 보고 싶던 야영소에 도착하였다。

내가 머리 속에 생각한 것 보다도 야영소는 말할 수 없이 훌륭하였고 바다'가 경치는 아름다웠다。

앞에는 높은 흰 기둥이 솟았고 기둥우 꼭대기에 소년단 휘장이 빛나는 궁전과 같은 집, 야영소 소장 아저씨는

《이것이 동무들의 구락부 입니다》

하고 자랑하였다。

정면에 들어서니 흰 벽 우에 우리 나라의 국장과 그리고 그 아래에 김 일성 원수님의 조각이 놓여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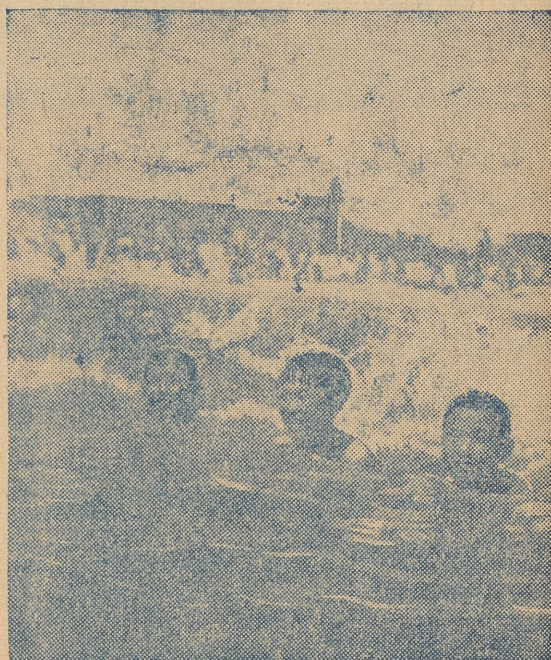
우리들은 일제히 소년단 경례를 하였다。

바로 이 훌륭한 야영소는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하여 지어준 것이다。

나는 공화국의 품 속에서 사는 한 없는 기쁨과 영예를 다시 한번 느꼈다。

소년단실, 꼬마 방송실, 식당, 둥그렇게 생긴 야외 도서실 그리고 200명이나 단꺼번에 오를 수 있는 야외 무대, 마지막에 우리들은 각종 써클 시설과 오락 시설을 구경한 다음 다섯채의 훌륭한 침동을 구경하였다。

깨끗하고 넓은 방마다 침대가 놓여 있고 매 침동마다 모기장이 쳐 있었다。

나는 이러한 훌륭한 야영소에

서 즐겁게 여름을 쉬게 된 기쁨을 곧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와 그리고 학교의 벗들에게 편지를 쓰고 싶었다。

★아침해 솟아 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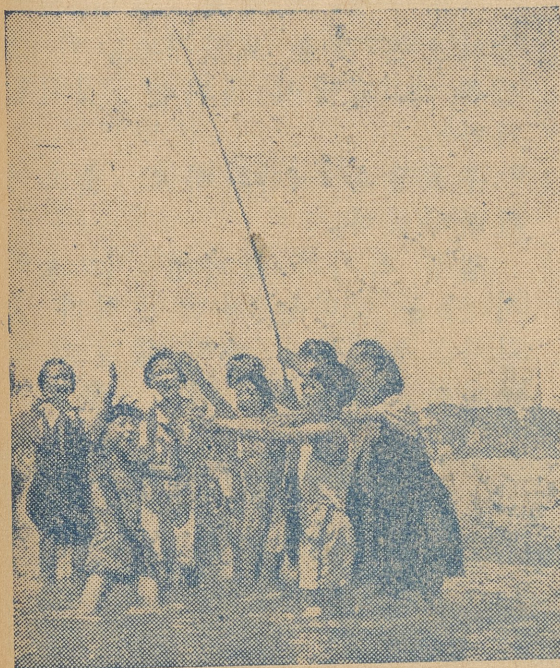
바다'가의 아침은 그대로 그림과 같다。

먼동이 터오면 바다의 섬들이 안개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좀더 있으면 고기'배들도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동쪽에서 눈부신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한다。태양이 바다 우와 넓은 신창벌을 붉게 물 들일 때 기상의 라팔소리가 울린다。 우리들은 포근한 잠자리에서 잠을 깨여 바다'가 백사장으로 달려나간다。아침해 맞이를 하며 붉고 푸른 야영기를 높은 게양대에 올린다。

솟는 아침해와 함께 우리들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된다。

★은빛 모래

기술 써클원들이 만든 태양 시계가 12시를 가리키면 우리들

동요

기차는 달려가네

조선 소년단 중앙 야영소 제1기 야영생
문학 크루쇼크원
왕 덕 영

칙칙 푹푹
기차는 달려가네.
어린 손님 태우고
야영소로 가지요.

칙칙 푹푹
검은 연기 풍풍
사리원과 평양도
단숨에 지나지요.

칙칙 푹푹
기차는 달려가네.

철교도 턴넬도
휙휙 지나지요.

푹푹 칙칙
기차는 달려가네.
차'간의 북소리에
신이 나서 달리지요.

어린 손님 태우고
야영소로 가는 기차
칙칙 푹푹
노래하며 달리지요.

은 푸른 파도를 헤치며 바다 우에서 헤염을 친다。

헤염을 친 다음 다시 따끈따끈한 은빛 모래 우에서 몸을 굴리며 해'볕을 쬐인다。

이렇게 해수욕과 일광욕은 한 시간 계속된다。 벌써 나의 몸은 구리'빛으로 탔다。 이제 야영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 어머니도 나를 얼핏 몰라보리라。 닷새 동안에 벌써 무게가 두키로 가까이 불었고 얼굴이 해'볕에 타서 집을 떠날 때 모습이 달라졌으니까…

★고요한 시간

오후 한시가 되면 점심 시간이다。

매일 반찬은 바꾸어 진다。 오늘은 갓잡은 생선이 올랐다。 곁에 와 서 계시는 분단 지도원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동무들, 아침에 고기'배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지요。 이 생선은 그 배에서 내리운 것이랍니다》.

우리들은 《야》 하고 웃으며 기뻐하였다。

점심 식사가 끝나면 《고요한 시간》을 알리는 라팔 소리가 울린다。 우리들은 다시 침실로 달려간다。 야영소는 쥐죽은듯 고요하여진다。 다만 푸른 파도 소리와 서늘한 바람 소리가 자장가처럼 귀'가에 들려 온다。

★바다'가의 밤

오침을 한 다음 간식을 한다。 간식은 매일 과자와 과일로 한다。 간식이 끝나면 크루쇼크별 활동 시간이다。 우리들은 이 시간을 가장 즐거운 시간의 하나로 맞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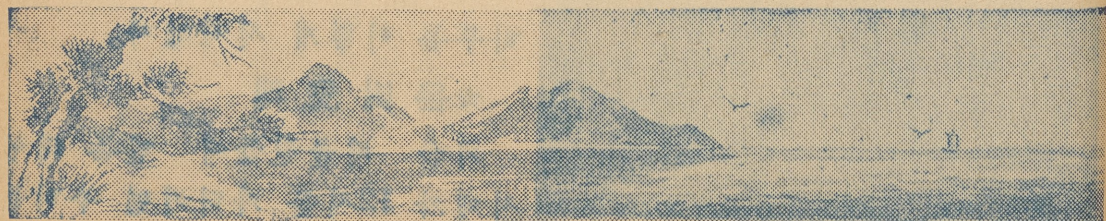
기술, 문학, 무용, 미술, 동식물, 체육 각 크루쇼크별로 행동을 개시한다。

기술 써클에서는 벌써 해지계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의 배들을 만들었고 동식물 크루쇼크에서는 수백종의 조개류, 해조와 어류 그리고 바다'가 동식물 표본과 꼬마 수족관, 곤충 사육통을 만들었다。

이 시간이 끝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다'가에는 밤이 온다。

밤은 더욱 즐거운 시간이다。

이 시간에 우리들은 우등'불도 피우고 영화도 감상하며 가면무도회와 연예도 하며 모범 전투원들과 작가와도 상봉을 조직한다。

오늘밤 우리들은 동식물 크루쇼크 지도원 선생님으로부터《바다 속의 비밀》 이야기를 들었다。 《바다 속은 어떻게 생겼을가?》.

선생님의 물음에 인민학교 동무들이 《바다 속엔 룡궁이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여 한바탕 웃겼다。

선생님은 물 표면에 사는 고기와 중가운데서 사는 고기가 어떻게 다르며, 바다 속 맨 밑은 어떻게 생겼을가에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물'살이 세여 사람도 들어 갈 수 없는 깊은 바다 밑 캄캄한 곳엔 눈이 크고 가시가 돋고 빛을 내는 고기들이 산다고 하였다。

밤은 점점 깊어 간다。

시계는 밤 아홉시에서 열시 사이를 달린다。

× ×

피마 방송실에선 노래와 시 랑송을 하고 있다。 우리들은 분단별로 된 침실로 달린다。 취침 시간이 올때까지 하모니카와 아코데온을 켜는 아이들, 피니와 다이야몬드 놀음을 하는 아이들 또 한쪽에서는 학교의 동무들과 부모들에게 편지를 쓴다。

오늘밤 나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

《아버지! 나는 지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야영소에는 우리들을 위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요. 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나에게 이러한 행복과 영예를 베풀어 주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배려에 보답하기 위하여 더욱 열심히 배워나가 앞날의 훌륭한 일'군으로 자라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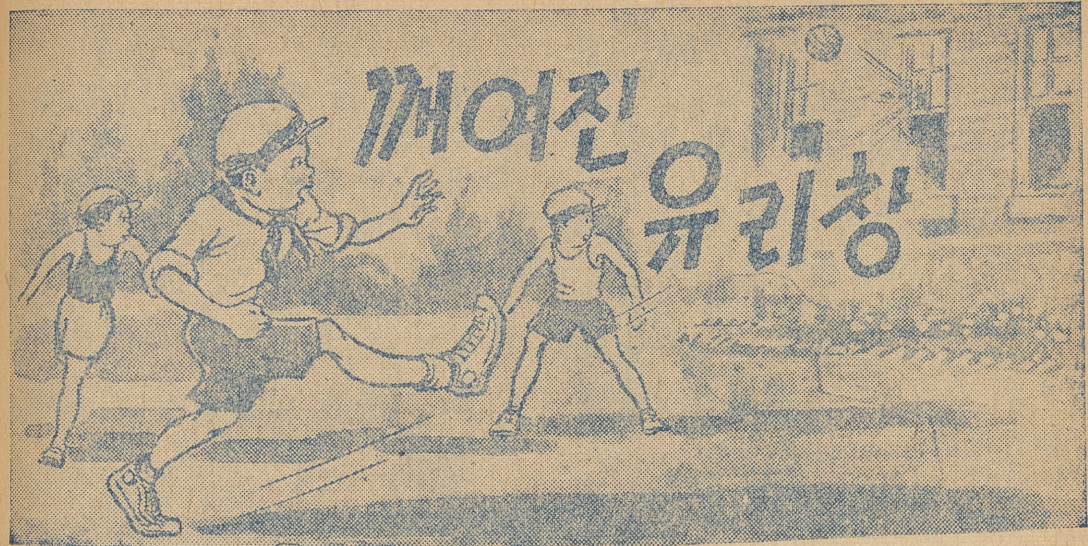
조선 소년단 중앙 야영소 제1기 야영생

문학 크루쇼크원 신 응 섭

살랑살랑 부는 바람,
바다' 바람은
쏴—쏴 물결 몰아
백사장에 오지요.

쏴—쏴 불어 오는
바다' 바람 하는 말,
이 바다는 영웅의 바다
김 군옥 영웅 어뢰정
원쑤를 물리친 바다.

용감한 인민 군대 아저씨들
양키 함대 휩쓸어 쫓아 내고요.
오늘은 우리들을 맞아 준대요.

해초 냄새 풍겨 오는
바다' 바람 하는 말,
아름다운 바다'가 야영소에서
해마다 즐겁게 만나자지요.

…개성시 남산 인민 학교 대에서…

박 정 렬

영남이는 막 늦은 것만 같아 헐떡이며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바로 그때 교실 안에서는 새로 붙인 벽보를 둘러싸고 쑤군거리던 동무들이 영남이를 힐끔힐끔 쳐다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영남이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동무들 틈에 끼워서 벽보를 들여다 보았습니다。

벽보에는 옷을 깨끗이 입지 않고 항상 어지럽히거나 찢기를 잘하는 장난'군에 대한 멋있는 만화가 붙여 있었지요。

그런데 영남이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만화 아래에는 〃장난'군 영남 동무〃라고 써 있었지요。

《흥 이건 누가 내였어. 내 옷을 내가 그랬는데 뭘 그래》 하고 영남이는 성을 내며 만화를 와락 찢었습니다。

누가 그려 붙였는지 당장 혼내여 주고 싶었습니다。

《왜 벽보를 찢어》. 동무들이 모두 말했습니다。

《내 옷과 벽보와 무슨 상관이냐》. 영남이는 떳떳이 대답했습니다。

《네 옷이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들의 땀으로 만들어진 것이야。 네 옷 좀 봐 그게 무슨 꼴이냐》. 한 아이가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가 그저께 씻어 입힌 영남이의 옷은 벌써 어지러워졌고 바지가랭이가 째졌습니다。

분단 동무들은 벌써 오래전부터 영남이가 옷을 단정히 입지 않고 또 자기 물건이건 남의 물건이건 소중히 여기지 않는 나쁜 버릇을 고쳐 주려고 애써 왔으나 그럴 때 마다 영남 동무는

《너희들은 별 참견을 다 하누나··》하고 발칵 성을 내군 했었지요。

아이들은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생님은 종이 나기 전에 교실로 들어 오셨습니다。

선생님은 종이 나기를 기다리면서 누구의 책상이 제일 깨끗한가를 살피며 교실안을 돌아 갔습니다。

언제나 깨끗이 닦아 놓는 명호의 책상은 오늘도 한 방울의 잉크도 묻어 있지 않고 반들 반들하게 윤기가 났습니다。

이것을 보신 선생님은

《명호는 학교 물건을 제일 사랑하는군》 하고 칭찬하시고 그 다음엔 대강 대강 보시고 교단에 오르셨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을 향하여 《자기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학교의 모든 물건도 소중히 여깁시다》 하고 말씀하였습니다。

영남이는 자기의 책상을 살펴 보았습니다。

책상 우에는 며칠 전에 칼로 크게 이름을 새겨 놓은 것이 인차 눈에 띄였습니다。

영남이는 선생님이 자기 책상을 보시는 것 같아서 두 손으로 책상 우를 가리웠습니다。

(선생님이 보시지나 않았을가?)

그러나 다행히 선생님은 더 말씀하지 않은채 종이 났습니다。

× ×

하루 공부가 다 끝났습니다。

영남이는 동무들이 거의 다 집으로 간 뒤에도 몇몇 동무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뽈을 차며 놀았습니다。

자기 앞에 떨어지는 공을 아주 멋지게 받아 차는 영남이는 우쭐해졌습니다。

공이 바로 영남에게 차례지자 그는 힘껏 받아 찼습니다。

그런데 공은 공중에 높이 오

르지 않고 쏜살 같이 앞으로 나가며 교실 창문에 부디치여 《쨍그당》 하고 소리를 내였습니다。

《앗》 영남이는 그 자리에 서고 말았습니다。

《아야 유리창이 깨졌어》. 동무들은 막 교실 앞으로 뛰여 갔습니다。

영남이는 그 자리에 서서 깨여진 유리 창만 물끄럼히 바라다 볼 뿐이였습니다。

《그까지것 한장쯤》. 영남이는 이렇게 생각해도 보았으나 그러

나 모든 동무들이 날마다 공부하고 있는 교실의 유리창이라고 생각했을 때 저도 모르게 마음이 찔렸습니다。

《야단 났구나. 교실 앞에서 공을 차지 말라고 타이르던 것을…》. 명호는 이렇게 말하며 유리 쪼각을 한데 모아 놓았습니다。

(어떻게 할가) 영남이의 가슴은 더욱 두근거렸지요。

영남이는 아침에 선생님이 하시던 말씀과 벽보에 나 붙었던 만화의 생각이 다시 떠 올랐습니다。

영남이는 자기가 이때까지 제 물건이건 학교의 물건이건 소중히 여기지 않는 아이였다는 것을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영남이는 몹시 걱정이 되였습니다。

《너 혼자 잘못이 아니야, 우리 다 같이 저지른 일이니까. 함께 구해보자》 하고 웅일이가 말했습니다。

틀림 없이 자기를 꾸짖을 줄로만 알았던 동무들이 이렇게 말할 때 영남이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 찼기 때문에 그랬지》.

영남이는 말끝도 채 맺지 않고 그대로 집에 뛰여 갔습니다。

그는 집에 들어서는 참으로 어머니에게 오늘 있은 일을 죄다 이야기했습니다。

영남이가 자기 잘못을 뉘우친 것을 어머니는 몹시 기뻐하시면서 사진틀에 넣겠다던 유리 두 장을 내 주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이 금시 가벼워진 듯한 영남이는 유리를 안고 학교로 막 달음질쳐 왔습니다。

교실에 들어선 영남이는 숨돌릴 사이도 없이 곧 창문에 유리를 넣었습니다。 두 쪼각으로 무은 유리는 잘 맞지 않아 종이로 덧 붙여야 했지요。

동무들도 모두 이 일을 도와 주었습니다。

영남이는 그제야 선생님을 찾아 가야겠다고 생각하며 교실을 나왔습니다。

영남이가 갓 넣은 유리창은 붉은 저녁 노을빛을 받아 반짝이는 유리창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눈에 띄였습니다。

영남이는 깨여진 유리창을 쳐다 보면서 《저 유리창 한장에도 많은 로동자 아저씨들의 땀이 스며 있지》. 이렇게 마음속에 외이며 학교의 물건을 귀중히 여길 줄 모르던 지난날의 자기를 다시금 뉘우쳤습니다。

새분단 위원회

평양 제4 중학교 대 인민반 제17 분단
위원장 리 승 옥

새 학년도가 시작된 어느날 분단에서는 열성자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날 모임에서 나는 또다시 영예로운 열성자로 선거되였고 분단 위원장이 되였습니다.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이 새로 만든 열성자 표식을 달아 줄 때 동무들은 나에게 박수를 보내여 주었고 꽃다발까지 안겨 주었지요.

나는 그때 동무들이 그렇게 나를 환영해 주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답니다.

나는 이 영예와 기쁨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내가 맡은 일을 훌륭히 해 내리라 굳게 마음을 다졌습니다.

이튿날 선거된 열성자들은 곧 한자리에 모여 앞으로 분단이 해 나갈 일들을 의논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우리 분단의 영예를 떨치기 위하여 공부에서나 분단의 모든 일에서 항상 열성자들이 모범을 보이자고 했지요.

지난해에 분단 위원 문 산옥 동무는 외가'집에 때때로 놀러 갔다가 여러차례 학교를 결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로부터 산옥동무는 분단 동무들의 잘못을 타일러 줄 수가 없었지요. 그것은 자기가 더 자주 규률을 위반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분단에는 선태와 같이 산수를 남달리 열심히 하고 있는 우수한 동무들이 많이 있었고 새로 나온 책들을 하나도 빠짐 없이 죄다 읽군 하는 어

린 독서가들도 여러명이 있었답니다. 그러나 지난 해에 분단은 이들에게 위임을 주지 않았고 그들을 중심으로 재미나는 모임들도 가지지 않았지요.

새 분단 위원회는 첫 일을 시작하면서 지난날에 있은 이러한 잘못을 하루 바삐 고치고 소년단원들이 즐기는 모임들과 재미나는 일들을 더 많이 가지기로 했답니다.

우리들은 분단 지도원 리 계순 선생님과 의논하고 열성자들이 앞으로 할 여러가지 일들을 분공했고 9월 중에 분단이 할 일들을 의논했지요.

9월 초 사흘날에는 우리의 선조들이 지금부터 89년전인 1866년에 무장한 미국놈의 배 《샤만호》를 대동강에서 쳐부신 이야기를 선생님에게서 듣기로 하였고 공화국 창건 7주년 기념일에는 어린 문학가들이 모여 《조국이여 너는 참 좋다》의 시 랑송과 연예 발표도 하기로 했어요.

이런 모임들은 우리 분단 동무들이 모두가 즐기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9월 22일에는 김 일성 원수의 항일 빨찌산 부대들이 1936년 장백현 소덕수와 대덕수에서 왜놈들을 쳐부시던 이야기 모임도 가지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 분단은 등산과 야유회도 9월 중에 가지기로 했지요.

지금 우리 분단에는 벽보《출발》 첫호가 나 붙었어요.

앞으로 분단 위원회는 우리 분단의 영예를 더욱 빛내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나는 농촌에서 일하겠다

지금 나는 보습반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보습반에서 공부를 끝 마치고 집으로 돌아 올 때면 나는 매호동'벌을 후뭇한 마음으로 바라보군 하지요。

매호동'벌의 협동 조합 논밭들에는 지금 한창 오곡이 무르익고 있답니다。

나는 아름다운 고향의 이 들판을 바라 볼 때마다

—나도 한해만 더 있으면 이 벌판에서 일한다—하고 마음 먹으며 보습반에서 배우게 된 것을 한없이 기쁘게 생각하지요。

바로 졸업식을 며칠 앞둔 어느 날이였습니다。

얼굴에 벙글벙글 웃음을 띄우시고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오시더니

《새 학년도부터 보습반이 생깁니다…》 하고 기쁜 소식을 알려 주는 것이였어요。

초급 보습반은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와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의 따뜻한 배려로 웃학교에 올라가지 않는 인민 학교 졸업생들이 앞으로 농촌을 비롯하여 복구 건설장에 나가 일하기 위하여 한해 동안 더 공부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인민 학교를 졸업하면 아버지를 도와 협동 조합에서 일하며 배울 것을 언제나 생각하고 있었던 나에게 이것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였습니다。

나는 막 기뻐서 집에 돌아오자 협동 조합에서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 오신 아버지에게 보습반 이야기를 했지요。

그랬더니 아버지도 매우 반가워하시였습니다。

지금 나는 보습반에서 초급중학교 1학년 과목들을 배우고 있답니다。식물에 취미를 가진 나는 인민 학교 《자연》에서보다 더 깊이 《식물》에서 새 지식을 배우고 있지요。

《식물》 시간에는 곡식들이 어떻게 자라나며 열매 맺는가를 자세히 배워나가며 인공 수분 방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비가 자주 내려 수분 작용이 잘 안될 때 옥수수의 수염(자예)에 깨끄리 (웅예)의 꽃가루를 털어준 것과 그렇게 하지 않은 옥수수 이삭을 비교해 보는 것은 참 재미 있었습니다。

인공 수분을 한 옥수수는 큰 열매를 잘 맺었습니다。

보습반을 졸업하고 협동 조합에서 일할 때 지금 배우는 것을 꼭 실험해 볼 작정입니다。

언제 보나 정다운 나의 고향—매호동'벌 논밭은 나를 부르는 듯 합니다。

나는 황금 이삭 물결치는 이 고향의 벌판을 바라 볼 때마다 어서 훌륭한 농업 일'군이 되기 위하여 더 열심히 배워야겠다는 굳은 결심이 마음 속에 용솟음 칩니다。

황해 북도 금천군 월암 인민 학교
초급 보습반 리 완 용

최 복 선

나오는 사람들

수복 (남) 분단 위원장
명희 (녀) 분단 벽보 주필
광모 (남) 소년단원
순희 (녀) 〃
경자 (녀) 〃
금숙 (녀) 〃
성자 (녀) 〃
영종 (남) 〃
민자 (녀) 〃
문자 (녀) 〃
희숙 (녀) 〃
영철 (남) 〃
영남 (남)
상형 (남) 〃
태용 (남) 〃
영은 (녀) 아직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
국철 (남) 〃
순자 (녀) 〃

때—1955년 여름 방학

곳—학교 교재원

무대—교재원이 있고 학교 공원이 련이어 있다. 록음이 우거지고 꽃이 만발하고 한쪽에 큰 나무들이 있고 그 저쪽으로 학교 운동장이 내다 보인다. 멀리 학교 벌판들이 보인다. 큰 나무 앞에는 벽보판이 있고 소년단 벽보 《백두산》 이 붙어 있다. 어린이들의 끝 없는 희망처럼 하늘은 맑고 푸르다.

—막이 오르면—

어린이들의 체육 모임에서 하는 합성, 박수, 만세 소리 멀리서 명랑하게 들려온다.

(순희, 영종 노래하며 꽃밭에 물을 주고있다)

영종 야 또 2분단에선 홍군이 이기나 보다, 저것 봐 저것.

순희 어디? 정말 (운동장쪽을 바라보며) 2분단 위원장이 홍이 나서 춤 추고 있네。

영종 체육 대회에선 우리 학교가 1등 자신 있지?

순희 체육 대회 뿐인가? 연예 써클도 자신 있어. 좀 들어 봐. 얼마나 노래 소리가 아름답니?

영종 그럼 우승기는 다 우리 학교로 가져 오게 되겠네.

(멀리 박수 소리, 합성 소리)

영종 야 멋이 있다。

순희 야 요것 봐 봉선화 꽃이 곱게 피였지?

영종 이 꽃씨를 받아서 두어야 겠다。

(희숙 나비를 잡으며 나온다. 나비가 꽃밭에 앉았다. 덥석 잡으려다 꽃밭에 너머진다)

희숙 저 나비, 나비, 에이 놓쳐 버렸네. 너희들 때문에 놓쳤다 야.

순희 왠 꽃밭에 너머지고 그게 뭐냐? 남이 애써 가꾼 꽃밭을 이렇게 마사 버리면 되니?

영종 이것 봐 꽃이 꺾어졌다야 야단 났네.

순희 꽃밭 보다 나비 잡이가 더 중하단 말이냐?

희숙 그럼.

순희 이 꽃밭은 우리 분단의 꽃밭이 아니냐, 정성껏 가꾸어야지. 너도 꽃에 물을 주어라.

희숙 흥 싫다야. 내가 뭐 꽃밭에 물 주려 왔니? 영웅 연구 모임 하러 왔지.

순희 좋아. 네가 안도와 줘도 좋아.

희숙 얘들아 나 춤추는것 봐줘 응, 써클 발표때 혼자 춤추기로 했어.

영종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왔니?

희숙 그럼 어머니 한테 졸랐더니 만들어 주시더라.

순희 거리를 무용복 입고 다니는 애가 어디 있니?

희숙 어때? 내가 좋으면 됐지 내가 춤 출테니 좀 봐줘 (혼자서 노래를 부르며 춤추기 시작한다)

영종 순희야 볼것 없이 물이나 길러 가자.

순희 그래 (나간다)

희숙 (싱거워서 춤추기를 그만 둔다) 체, 안봐 주면 그만이지. 내가 뭐 저희들 한테 무용을 배워 달라고 했나, 어디 꽃밭을 얼마나 잘 만들었기에 야단이야 얘, 이 봉선화 참 곱다 이것 뜯어다 내 책상 우에 갖다 꽂아야지 (꽃을 꺾는다).

(멀리서 동무들의 소리) 아이고 오는 모양인데 들키면 어떻개

(가방을 놓고 잊어버린채 나간다)

—영철이와 영남이 군복 차림으로 들어 온다。 마치도 적 진지 정찰 하듯이—

영철 영남아 조심해 빨리 와.

영남 어쩐지 무시무시한데.

영철 겁쟁이가 되여서는 정찰병을 못해.

영남 암만해도 무서워.

영철 이 교재원을 우리가 점령해야 그애들이 여기서 놀지 못할께 아니냐?

영남 그래.

(둘이서 주위를 살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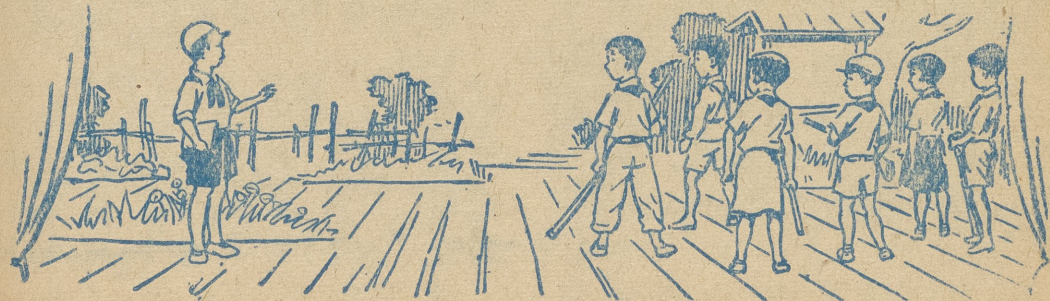
영남 대장 동무! 이름 모를 가방이 여기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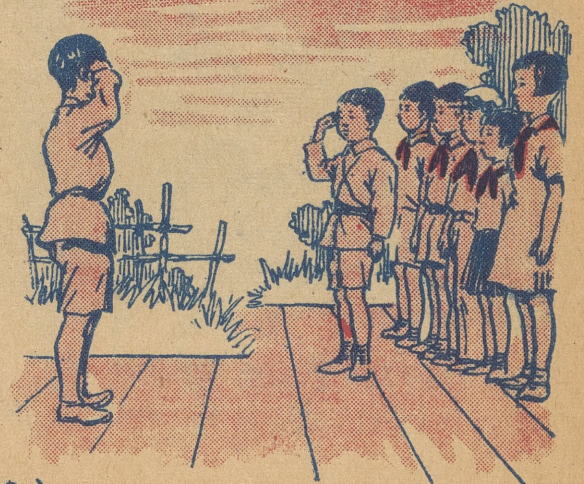
영철 어디? 이상한데. 그것도 전투 일기에 기록해.

영남 이름 모를 가방을 발견하였음.

영철 어디 뒤저 보자 응. 희숙

이 꺼구나 그 욕심쟁이 만년필도 다 있구나.
영남 우리 로획하자.
영철 그래 그런데 아무도 없는 데서 로획해서는 안돼. 정찰병의 위신이 떨어지거든.
영남 그래 그럼 동무들이 올때까지 기다려 볼가? (영은, 국철, 순자, 땅크 놀음하며 오고 있다)
영철 꼬마들이 온다。
영남 땅크 놀이 하며 오는데. (영남이와 영철이 망원경으로 바라보며)
영철 저기 희숙이도 온다。
영남 가방을 가지러 오는 모양이지,
영철 됐어 너는 저 꼬마 땅크부대에 희숙이도 넣고 땅크놀이를 해, 네가 운전수가 되란 말야. 그럼 내가 가방 속에서 만년필을 꺼낼테니.
영남 됐어 됐어 (꼬마 땅크부대 들어온다)
영남 쉿! 쉿. (막으며)
영은 오빠 여기 있었구나. 우릴 정찰 놀음에 넣어 줘.
영철 어디 그럼 땅크 놀이 한번 해봐 (희숙이 들어 온다)
희숙 얘들아 내 가방 못 봤니?
영철 너 땅크 놀이 안하겠니?
희숙 땅크 놀이? 재미나니.
영남 그럼 여간 재미 있지 않아
희숙 한번 해 볼가?
국철 빨리 해 빨리.
영남 그럼 내가 땅크 운전수다 (영철이만 남고 다— 땅크가 된다. 땅크놀이 시작한다. 그 동안에 영철이는 희숙이 가방속에서 만년필을 집어낸다. 땅크 속도가 빨라서 넘어진다)
희숙 난 안할테야, 너머져서 무용복 다 버리겠네. 난 가방 찾으러 왔어.
영철 여기 가방 있다. 가지고 가라.
영남 조곰만 더 놀자.
희숙 싫다야 (가방을 가지고 나간다)
영철 어때 내 기술이 1등이지.
영은 오빠 뭐가 1등이야?
영철 안야. 네가 알것이 아니야
국철 인젠 우리도 정찰 놀음에 넣어 줘.
영철 안돼 땅크 놀이가 서투른데 뭐.
영은 오빠 난 간호원 하께.
영남 영철아 우리는 간호원이 없지 않니?
영철 응 그래 영은아 넌 우리 간호원이야.
영은 내 오빠 다치믄 잘 치료 해주께.

영철 내가 부상을 당해? 난 영웅인데.
영남 쉿 여기는 적 진지야. 조용히 얘기해라.
영철 너희들은 가 (국철 순자에게)
순자 그럼 이따 정찰 놀음에 넣어 줄테냐?
영철 그래 이따 더 련습하구 와
국철 아이 우린 미끄러졌네.
(땅크 노래 부르며 나간다)
영철 야 발자국 소리 난다. (둘이서 살펴 본다)
영남 명희하구 광모다. 손에 무엇을 들었구나.
영철 또 벽보지 뭐야.
영은 오빠 빨리 숨자.
영남 그래 (영철, 영남 뛰여 나간다)
영은 오빠! 나도 데리구 가.
(영은이 따라 간다)
(광모, 명희하고 벽보를 들고 등장)
명희 똑바로 붙었니? 좀 삐뚜렀나.
광모 됐어 동무들이 보면 좋아하겠다.
명희 그럼 그중에도 영철이가 제일 좋아할꺼야.
광모 그럼 그애는 제가 김 봉호 영웅이라고 우쭐대는데.
(순희 영종 수복이 들어 온다. 물을 걸어 가지고)
순희 영웅 사진 또 붙었니?
영종 어디? 어느 영웅인가?
수복 야 멋이 있다.
광모 그것도 몰라
수복 김 봉호 영웅이 아니냐?
영종 응 참 잘 생겼구나 멋이 있는데.
광모 우리 벽보 제목도 멋이 있지 "백두산"
순희 난 이다음에 백두산에 올라가서 김 일성 원수의 투쟁 모습을 시로 만들겠어.
영종 난 건축가가 돼서 백두산에 있는 큰 나무들을 짤라 멋있게 집을 짓겠다.
순희 난 백두산엔 못 가드래도 수령님이 자라신 만경대에 좀 가보면 좋겠다。
광모 대동강물이 흐르고 다박솔 우거진 만경대, 얼마나 좋겠니.
모두 나도 그래
수복 우리가 공부만 잘하면 갈 수 있어.
모두 정말 그럴가?
수복 그럼,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모두 우등생이 되면 만경대 견학을 데리고 가시겠다고 하셨어.
수복 아무렴 선생께서 거짓말

하시겠니?
모두 야! 좋다.
광모 그런데 영철이 때문에 다 틀렸어, 산수 시험에 2점 맞았어.
순희 영철이는 영웅 되겠다면서 공부는 안하고 정찰 놀음만 하니까 그렇지 뭐.
명희 영철이를 장난'군이라고 벽보에 낼가?
수복 안야 영철이를 작난'군이라고 내 봐, 그애가 고집 부리고 더 말을 안 듣는다. 정찰 놀음처럼 공부도 그렇게 잘하면 영웅이 될 수 있다고 내면 좋을것 같애, 내가 영철이한테 좀 갔다 오께 (나간다)
순희 수복이는 영철이를 고쳐 주려고 애를 쓰고 있어.
명희 그렇게 하면 고쳐질 줄 알고, 안돼. (순희 일어나서 꽃밭에 온다)
순희 영종아, 봉선화 꽃이 없어졌다.
영종 뭐?
명희 누가 꺾어 갔을가?
광모 참 야단 났네.
(희숙 울며 나온다)
명희 너 왜 우니?
영종 너 아까는 까불고 춤추더니.
순희 왜 우니?
희숙 (울며) 만년필을 잊어 버렸어. 누가 훔쳐 갔어.
순희 만년필을 누가 훔쳐 가겠니.
희숙 안야 훔쳐 갔어, 가방 속에 꼭 넣고 왔는데 교실에서 숙제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없지 않니
광모 6·6절에 어머니가 사 주신것 말이냐?
희숙 응
순희 울지 말고 집에 가서 다시 찾아봐, 정말 누가 훔쳐 갔다면 우리 분단의 큰 수친데. 봉선화도 누가 훔쳐 갔어.
희숙 봉선화? 난 그것 몰라 난 집에가 보겠어 (나간다)
명희 그런데 봉선화가 왜 없어졌어.
순희 그래 이상하지.
(이때 영철이와 그의 동무들이 나오며 이들을 둘러 싼다)
영철 손 들엇! 손 들엇! (동무들 흩어져서 너머진다. 영철이네 패는 둘러 싸고 "만세—"를 부른다)
영철 우리는 인민군 정찰병이다。
명희 너희들은 또 정찰병 놀음이야.
영철 이다음에 영웅이 되기 위해 그러거든, 어때 내가 영웅 같지?
명희 영웅은 무슨 영웅이냐 너 그래 영웅을 얼마나 아니?
영철 김 봉호, 백 명기, 백 사순 박 원진 그 외에도 300명 더 안다。
영종 그 밖에 또 모르지?
영철 뭐? 쏘련 영웅 말이냐?
순희 아니 로력 영웅 말야。
영철 으응, 로력 영웅 내가 또 잘 알지, 김 봉례, 당 운실, 조두실 그외 또 30명 더 안다.

명희 영웅 영웅 하지말아, 넌 우리 분단의 수치로 되였어.
영남 너 꽁꽁 묶어 간다.
명희 너희들이 전투 놀이에만 팔려서 공부엔 2점짜리 너희들과 이야기도 안할테야.
영철 마음대루 하렴. 난 겁나지 않는다.
명희
애들아 2시부터 휴가중 계획서를 토의하기로 되여 있지, 가자. (명희, 광모, 명종, 경자 퇴장한다)
영철 고것들 아주 뽐내고 있어 전체 돌격! (모두 퇴장한 동무들 따라 나간다)
영철 (아주 만족한 듯이) 내가 제일이야, 얘들아 도루와! 지금은 됐어 됐어 (영철이의 명령대루 도루 들어온다)
영철 쉬엿, 영웅 연구 모임 진지를 완전히 점령하였다, 모두 잘 했다。
모두 응
영철 모두 저 교재원 뒤 나무 그늘에 가서 쉬엿!
영남 차렷, 우로 돌앗! (영철, 영남 남고 모두 교재원뒤 나무 그늘로 나간다)
영남 (벽보판을 들여다 보더니) 얘 벽보 새로 붙었구나 이것 봐 사진도 있고,
영철 어디? 야 이것 김 봉호 영웅이다. 이것들 이사진 어디서 났을가? (모자를 바로 쓰며) 어때 나 김 봉호 영웅 같지? 이만하면.
영남 그래 꼭 같다.
영철 난 김 봉호 영웅은 아니지만 김 영철"영웅"이거든, 정도 꼭 같지.
영남 너무 뽐내지 말아.
영철 뭐 이만하면 뽐낼만 하지
영철 그런데 영남아, 명희 고것 정말 좋지 못해.
영남 아니 뽐내느라구 그러는 거야 우리가 뭐 잘못한것 있니?
영철 그럼, 우리 저 사진 뜯을가?
영남 그래 (영철 사진을 뜯는다)
영철 희숙이 만년필을 갖다 넣어 두고 와! 그애 가방은 교실에 있을거야.
영남 명령대루 갔다 오겠습니다, (경례를 부치며)
영철 조심해라 들키면 정찰 놀음에서 뺀다.
영남 문제 없습니다.
영철 발소리를 내지 않고 빨리 앞으로!
(혼자 남아서 흥겨워 노래 부른다 수복이 들어와 영철이가 노래 부르는 것을 보고 서 있다) (다음호에 계속)

산 샹 훼

(1) 샤오린의 아빠는 아침 일찌기 공장으로 갔습니다。

(2) 샤오린의 엄마는 괭이를 가지고 밭으로 갔습니다。

(3) 그래서 샤오린 혼자 집에 남게 되였는데 그 애는 아무 일도 할게 없었습니다。

(4) 샤오린은 이것 저것 생각하다가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그는 괭이를 메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5) 마당 옆에 있는 밭에서 샤오린은 돌을 광주리에 주어담고 밭을 깨끗이 쓸었습니다。

(6) 그 다음 샤오린은 흙을 파서 이랑을 만들고 광주리에 담은 돌맹이를 집 근처에 흐르는 시내'가에 갖다 던졌습니다。

(7) 밭고랑을 다 만든 샤오린은 씨앗을 가져다 밭에 심었습니다。

(8) 그 다음 샤오린은 물을 길어다 밭고랑에 끼얹기 시작했습니다。

(9) 밭고랑에 물을 주고 난 샤오린은 손을 깨끗이 씻고 나무 그늘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10) 아빠가 일터에서 도라와 샤오린에게 물었습니다。
《밭 고랑은 누가 지었니?》
샤오린은 대답했습니다.
《어린 열 동무가 도와 줬어요》

(11) 엄마가 밭에서 돌아와 물었습니다
《이건 누가 했니?》
샤오린은 대답했습니다.
《어린 열 동무들이 날 도와 줬어요》.

(12) 《그 애들이 어디 있니? 네 어린 열 동무들이》
엄마와 아빠는 이상히 여겼습니다.
《보세요 그 애들이 여기 있어요》。
샤오린은 두 손을 쳐들어 보였습니다。

여우와 단지

우쉰스끼

한 할머니가 밭에 일하려 나와 우유 단지를 숲 속에 두었습니다。

마침 여우가 지나다가 그것을 보고 단지에 머리를 틀어 박고 꿀꺽꿀꺽 우유를 마셨습니다。그런데 우유를 다 마시고 났지만 단지에서 머리를 뺄 수가 있어야지요。

참 야단났습니다。 여우는 머리를 빼려고 단지를 잡아 흔들며 왔다 갔다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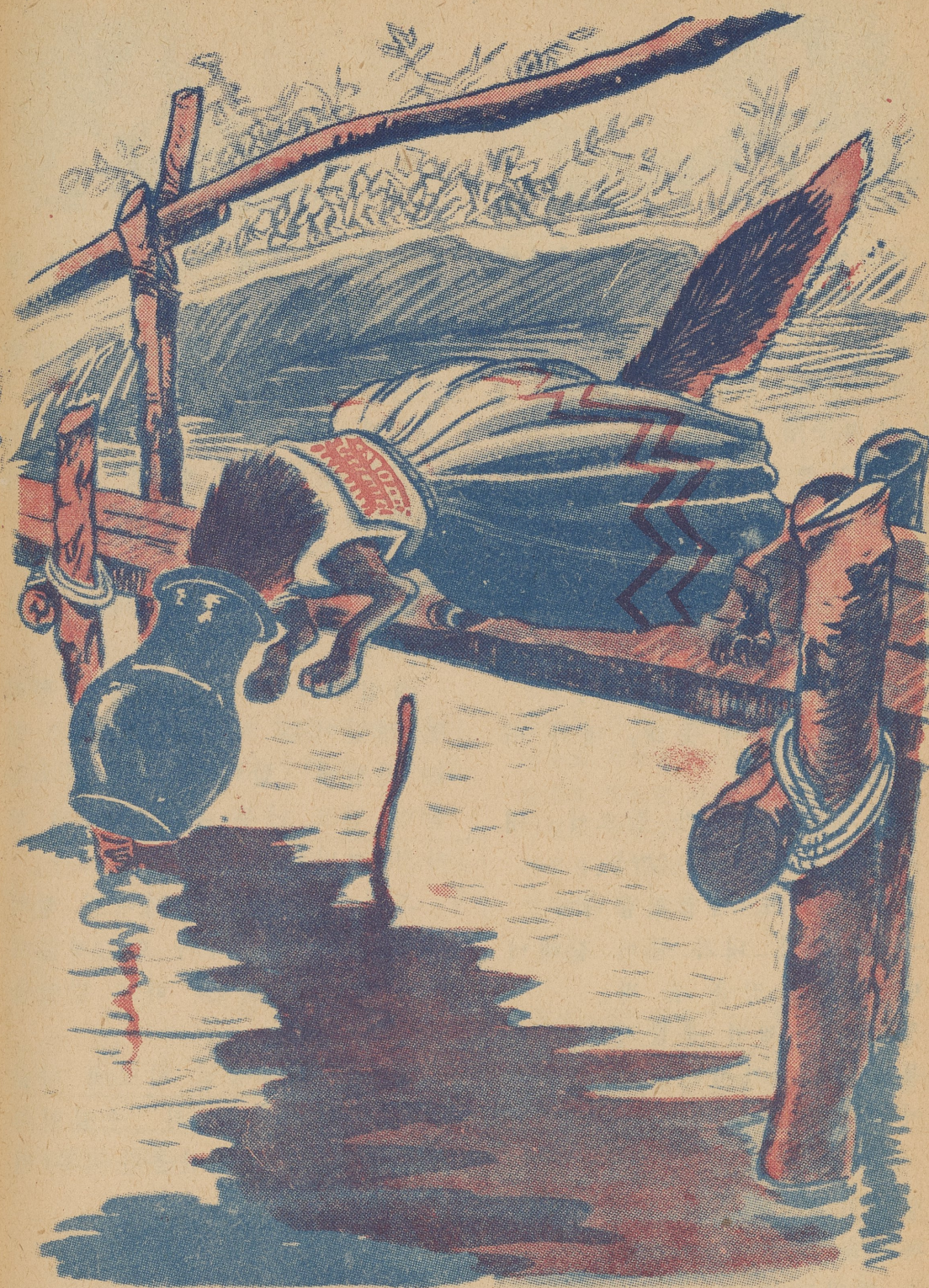
《이놈의 단지야, 이젠 그만 해라, 인젠 날 좀 놔 주렴! 너 정말 그러겠니? 그만큼 장난했으면 인젠 됐어!》

그러나 단지는 여전히 그냥 머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여우는 성이 잔뜩 났습니다。

《어디 보자, 망할 놈의 단지 같으니! 놔 주지 않으면 널 물 속에 처 박겠다》.

그래서 여우는 단지를 물 속에 처 넣으려고 강으로 냅다 뛰여 갔습니다。

단지가 물 속에 빠지기는 했으나 여우도 단지와 함께 물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지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가에 마을 할아버지네 과수원이 있습니다.

과수원의 사과는 새빨갛게 익어 주렁주렁 맺혔습니다.

경일이는 수길이를 보고 말했지요.

—수길아! 내 사과를 딸게 너 여기서 받아라.

—얘 할아버지가 보믄 어떻개,

수길이가 대답했습니다.

—넌 용감하지 못해, 내가 따겠다는데.

—네가 따도 내가 봤으니 내가 딴 것과 같지 않니.

수길이가 또 대답했습니다.

—머저리! 내가 들어 갈테니 넌 여기서 망을 좀 봐.

경일이는 제법 우쭐거리며 소매를 거두고 가시나무 울타리를 넘어 다람쥐처럼 사과나무에 기여 올라 갔습니다.

경일이는 두 주먹 만큼씩 큰 사과알을 따서 호주머니에 넣은 다음 이번에는 새 소리처럼 휘파람을 내여 수길이를 부르고 사과알을 훌훌 밖으로 뿌려 뿌렸습니다.

수길이는 뽈처럼 받아 쥐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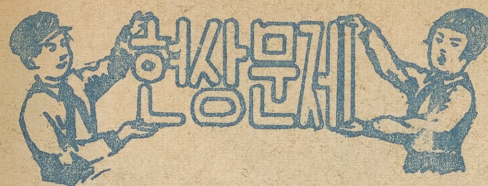
수길이가 망을 보다가 다시 머리를 돌리려고 할 때 또 사과알이 윙 하고 날아 왔습니다.

《앗》

사과알은 수길이 이마에 맞았습니다.

정신없이 사과알을 쥐여 뿌리던 경일이는 수길이가 《앗》하는 바람에 할아버지가 나오는 줄만 알고 나무 우에서 내려 뛰다가 땅바닥에 구울었습니다.

그때 흔들리운 가지에서 떨어진 사과알이 두개나 또 경일이의 이마에 《째끈》 하고 맞았습니다.

이리하여 그다음날 학교에 나왔을 때까지 경일이와 수길이의 이마에는 사과알만큼한 《혹》이 있었답니다.

길 찾 기

사랑하는 소년단원 동무들! 여기에 있는 그림을 보십시요. 여러가지 동물들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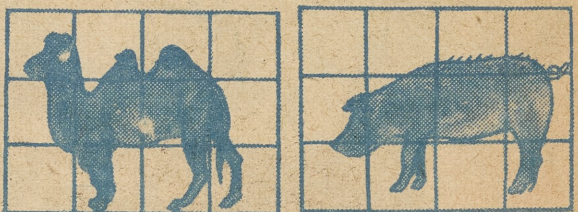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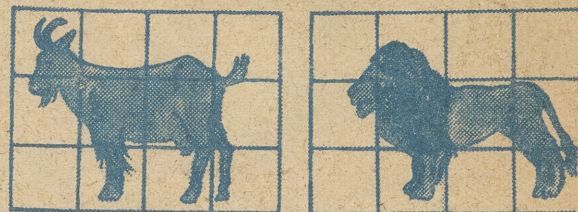
그런데 이 동물들은 서로 자기 동무를 찾으려고 합니다. 오리는 자기의 동무 오리를 찾으려고 하며 개는 자기의 동무 개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이 지나간 길을 지나거나 가로 건느지 않고 찾아가야 합니다.

이 동물들은 길을 잘 찾지 못해 걱정합니다.

동무들! 이 동물들에게 누가 길을 찾아 주겠습니까? (길은 금을 그으시요)

7호 현상 문제 해답 및 당선자 발표

답

당선자

함북도 김책군 업억 인민 학교	김태권
함남도 광천군 제2중학교(인민반)	김태오
평북도 선천군 원봉 인민학교	김문현
평남도 룡강군 월매 인민학교	류수웅
황북도 장풍군 십탐리 인민학교	마양일
황남도 배천군 신원 인민학교	조천휘
자강도 시중군 제4중학교(인민반)	김남용
량강도 백암군 천수 인민학교	강원남
강원도 법동군 룡표 인민학교	양복환
개성시 만월 인민학교	박경자
평양시 제7 인민학교	고만호

앞표지—실습지에서……림영환 그림
뒤표지—등산을 떠난다
(조선 소년단 중앙 야영소에서)

편집 위원——김 주 현(주필) 김 창 호 원 홍 구 리 순 길
강 효 순 리 배 형 림 홍 은

1955년 9월 15일 인쇄
1955년 9월 20일 발행
발행소 민주 청년사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소년단》 1955년 제9호 (총72호)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30154 값 25원 52,000부 발행